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노동조합에 드립니다.

친일 문인 기념 ‘팔봉비평문학상’을 폐지해주십시오!

중앙 언론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한국일보는 언론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정한 여론을 지향하고 있는 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하에서 친일보국, 전선문학 정신으로 일본에 부역한 대표적인 친일문인 팔봉 김기진을 기리는 ‘팔봉비평문학상’을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진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과 독자들의 뜻을 모아 정중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친일문학인 중의 한 사람인 김기진의 문학적 업적을 ‘문학상’으로 기념하기엔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팔봉비평문학상은 1990년 한국일보가 제정했으며, 동인문학상, 조연현문학상, 미당문학상에 이어 친일문학인을 기리는 대표적인 친일문인 기념 문학상입니다.

제정 이후 김기진의 친일행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한국일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사와 시상을 해왔습니다. 2017년 미당문학상 논란이 크게 일고 사회적 비판은 물론 한국 문단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관사인 중앙일보는 2018년에는 더 이상 미당문학상 운영을 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미당문학상 중단은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현재 중앙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친일문인 기념 문학상으로는 한국일보의 팔봉비평문학상과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상하고 있는 십여 개의 친일문인 문학상보다도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언유착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문단에 개입해 문화적 지배를 행사하게 되고, 더구나 이 문학상의 본질이 ‘친일문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언론이 왜곡된 역사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기진은 태평양전쟁 시기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인물로, 각종 반민족단체, 조선문인보국회 상무이사, 조선언론보국회 이사, 대일본홍아회 조선지부 총무위원 등을 지내며 집필뿐 아니라 연설과 강연 활동으로 일제의 침략을 선전했던 인물입니다. 1944년 8월 조선문인보국회가 주최한 적국 항복 문인대강연회에서 「문화인에 격함」이라는 연설을 하며 “우리 일본 국민의, 동아인의 오늘날 역사적 지상명령은 미, 영을 격파해서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전력을 증강하는 일이며, 1억의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기 위해서는 반도 2천6백만의 혼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오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방 직전 1945년 7월, 조선언론보국회가

각 지방 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본토 결전과 국민의용대 대강연회’에서 연사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적국을 비난하고 희생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기진의 친일은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었고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중일전쟁을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가진 성전”이라 주장했으며, 「경산시첩」과 같은 작품에서는 “삼천리 한집이요 내선이 일가어늘/어찌나 이 큰 전쟁이 내 싸움이 아닐까”라며 일제의 전쟁을 조선인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도록 썼습니다. 또한 그는 일제 관제신문인 매일신보 기사를 17년 동안 하고, 매일신보에 발표한 「아세아의 피」에서는 “마침내 ‘선전포고’다!/영미 두상(頭上)에 폭탄의 피를 퍼부어라!/극동의 해가 찬란한 해가 뚜렷한 일장기가/아침 하늘에 빛난다 이글이글 탄다”고 하면서 일제의 싱가포르 함락, 홍콩 함락, 마닐라 점령 등을 축하했으며, 역시 매일신보에 발표한 「의기충천」에서 “일찍이 우리가 바친 늦그릇들이 모조리 어뢰 되어/지금 서남태평양에서 악의 무리를 쳐부수는구나/일찍이 공장에 들어간 아우가 누이가 정성을 다해서/아아 주먹에 땀을 쥐고 이를 갈면서 우리도 따르자”고 하며 침략전쟁을 찬양했습니다. 아울러 징병과 학병을 선전, 선동하는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징병제가 시행되자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에서 “반도의 아우야, 아들이 나오라!/님께서 부르신다, 동아의 백만의 천 배의/용감한 전위의 한 부대로 너를 부르신다/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광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라며 조선인의 희생을 주장했습니다. 학도병제가 실시되자 「나도 가겠습니다—특별지원병이 되는 아들을 대신해서」에서 “한 사람에 천 년의 목숨 없고/천 살을 산들 썩어 살면 무엇에 씩니까!/ 대로 받아 내려온 제 몸의 이 더운 피/이 피는 조선의 피이며 일본의 피요,/다 같은 아세아의 피가 아니오니까”라며 학도병들이 전쟁터로 나가길 종용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친일 청산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유독 문학 분야에서는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친일 문인 기념 문학상은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문학상은 작가의 업적을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권위를 낳습니다. 문학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학상 자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일보문학상은 한국일보의 취지에 맞는 기준과 색깔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봉비평문학상은 한국일보의 취지에 맞는 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친일문인 김기진의 이름으로 시상되는 팔봉비평문학상 운영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친일 문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노동조합에 요청드립니다.

친일문인 기념 팔봉비평문학상 운영과 시상을 중단해주십시오!

2019년      월      일